

수원보호관찰소

○ 매체 : 중부일보(3. 20.)

○ 제목 : 골 때리는 보호관찰청소년들... 수원보호관찰소 축구교실 운영

HOME > 사회 > 사회종합

중부일보

골 때리는 보호관찰청소년들... 수원보호관찰소 축구교실 운영

A 노경민 | © 승인 2024.03.20 15:03



수원보호관찰소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축구교실 'Goal 때리는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보호관찰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 축구교실을 연다.

수원보호관찰소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Goal(골) 때리는 아이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Goal 때리는 아이들'은 수원보호관찰소와 재단이 지난 2019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축구교실이다.

전문 강사가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드리블·슈팅 연습, 미니게임 등을 교육한다.

이민주 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체험 강좌를 기획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이 축구교실을 통해 협동심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경민기자